



브라질, 상업 농장에서 첫 조류독감 발생 확인

2025년 5월 16일/지도/브라질.

<https://www.gov.br>

2025년 5월 19일 (3일 전)

브라질 농림축산부(MAPA)는 5월 15일 목요일 몬테네그로 히우그란지두술주에 위치한 한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. 이는 브라질 내 상업용 양계장에서 HPAI가 검출된 첫 사례입니다.

국가 비상 계획에 명시된 봉쇄 및 근절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

MAPA는 또한 관련 생산 체인 기관, 세계동물보건기구(WOAH), 보건부, 환경부, 그리고 브라질의 무역 파트너와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.

브라질 수의 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.

수년에 걸쳐 이 질병이 브라질 상업용 가금류 사육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생 조류 모니터링, 상업용 및 자급자족형 가금류 사육에 대한 역학적 감시, 공식 및 사립 수의 서비스 기술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, 위생 교육, 브라질로 동물과 그 제품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감시를 시행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.

이러한 조치는 매우 중요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브라질 상업용 가금류 농장에 이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.